

01 교회소식

성결의 복음을 들고서 세계로

NRB(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에 참가한 GCN 방송과 일본 지교회가 하나 돼 영광 돌린 이다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소식.

02 생명의 말씀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어떤 훈계나 책망도 마음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03 기획특집

온 영의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차원을 이뤄 점차 천국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온 영'의 세 가지 증거를 살펴본다.

04 간증

“지금의 행복, 꿈만 같습니다.”

주 안에서 회복한 가정을 이룬 최영숙 집사와 손수건 기도로 여덟 살 된 손녀가 처음 걷게 된 필리핀 리디아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24호 2014년 3월 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GCN 방송, '2014 NRB 총회 및 박람회' 참가



GCN 방송은 생명의 말씀과 성경이 참임을 확증하는 권능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 간증, 교양,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송하며, 모바일(m.gcntv.org)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사진은 ①GCN 방송 부스, ②NRB 신임 회장 제리 존슨 박사(오른쪽)에게 이재록 목사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전달, ③이재록 목사의 신앙 서적에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2014 NRB(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 총회 및 박람회'에 GCN 방송이 참가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NRB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기독교방송 사역자로 구성된 모임으로 전 세계 1,400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GCN 방송은 NRB 이사장 리처드 보트 박사 등 NRB 지도부와 교계 인사들을 만나 교제하며 GCN 방송(www.gcntv.org)의 선교 사역을 홍보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GCN 방송 홍보 데스크에는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방송사역 단체 대표들이 방문했다.

NRB 신임 회장 제리 존슨 박사는 GCN 방송 부스와 전시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살펴본 뒤, "이재록 목사님께서 NRB 총회에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안부인사를 전했다. 또한 여러 저서 중 『지옥』 책자를 보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TBN 러시아 이고르 니키티ن 사장은 "최근 새로 시작

한 채널에서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1~2개월 사이에 많은 기도 요청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이재록 박사님 외에는 기도를 통해 수많은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분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 및 박람회를 통해 브라질 미디어 그룹 '레데브라질', 아르메니아 기독교방송 아베디스 TV, 세계 최대 기독교 방송사 TWR(아프리카 지부) 등과 방송협력을 체결했다. 또한 NRB 이사이자 인기 토크쇼 진행자인 존 앵커버그 박사 일행과도 프로그램 공급에 대해 협의했다.

포토뉴스

닛시 오케스트라 창단 22주년 기념 특주



지난 3월 2일 주일 저녁예배 시, 세계 최초 찬양전문 닛시 오케스트라(지휘 조관형 장로)가 창단 22주년을 맞아 '영광을 받으시네', '믿음으로 걸어온 길'을 특주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일본 이다만민교회 창립 20주년 맞아

지난 2월 23일, 일본 나가노현 이다 시에 세워진 이다만민교회(담임 유승길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참석했다. 1부 예배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 이다만민교회 연합성가대와 레인보우 반주팀의 특송 후, '열매라는 제하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2부에는 일본 각 지교회 예능팀들의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권능팀의 힘 있는 위신과 찬양, 그리고 회중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전날인 22일에는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감사 이희선 목사가 집회를 인도했다.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고 비염, 다리 골절, 오십견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렸다.

일본에는 이다, 나고야, 벳부, 야마가타, 오사카, 아사히가와, 동경타바타, 마쓰모토, 마이즈루, 오카야마, 호코타, 동경, 누마츠, 오키나와 만민교회 등 14개 지교회와 1개 협력교회가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9)

빛의 열매

하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자랑하거나 들레지 않는 마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등이 다 착함에 속하지요.

다음으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드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나가고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반듯하고 절도있는 행함,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 옳은 일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는 것 등 이다 의로움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란 거짓되지 않는 것, 약속이나 언약을 지키는 것,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약속을 해 놓고는 지키지 않거나 입술로 낸 말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

본문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흔히 구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돈을 주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살펴 주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착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목적이나 결과가 선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착한 행실이 빛의 열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안에 의로움, 즉 하나님의 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착함과 의로움만 가지고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진실함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차원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선행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빛 가운데 행할 때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3. 빛의 열매를 맺은 아브라함의 축복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이는 곧 빛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성경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삶 자체가 빛의 열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함을 좇아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가 하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취하지 않으려는 깨끗하고 착한 마음의 소유자였지요. 이렇게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함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순종했지요. 또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움이 됐습니다(창 15:6). 즉 자신이나 아내가 이미 출산할 수 없을 정도로 늙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못별을 보이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맺힌 진실함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진실함에 해당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도 원망이나 주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창 22장).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혔기에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베풀라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에베소서 5장 11~13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 나타내지는 것마다 빛이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책망을 통해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고자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버려 나갔지요. 흑미움이나 혈기 등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노트에 적어 놓고 철야하고 금식 해서라도 마음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버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있는가를 찾으며 온전히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힘쓰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험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시험 환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깨우쳐 주고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잘못된 것은 고쳐 주고 바르게 이끌어 줄 때 비로소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필요할 때는 지적하고 책망을 해서라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책망 받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 부족한 것이나 잘못이 있어 책망받을 때에도 중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돼야 합니다. 책망받는 것마다 즉시 돌아켜야 신속히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날같이 드러내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훈계나 책망도 마음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속히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주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마음을 갖게 되고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과연 빛의 열매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요?

1. 빛의 열매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착함이란 선하고 악의가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선을 베푸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례를 범치 않는 마음, 남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 화평하고 양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 5528, 504, 643, 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 / 5, 51, 150, 505, 507, 5531, 5534, 5601, 5616, 5617, 5620, 5621, 5623, 5624, 5625, 5627, 5633, 5713, 6512, 6635, 금천06 / 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11:00 PM
11:00 PM
7:00 PM
8:00 PM
9:00 PM
4:00 PM
3:00 PM

주일 저녁예배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공요철차예배
수요예배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다녀오실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온 영의 증거는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다. 여기서 ‘온 영’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차원을 말한다. 과연 온 영을 이룬 증거는 무엇일까? 2013년 7월 초,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린 기관장 교육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하나 에녹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온 영의 사람은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 최선을 다한다. 무엇을 하든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다.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께 두기에 하루 24시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향이 풍겨난다. 하나님과 하나 돼 온 영을 이룬 자녀에게는 권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며 많은 열매도 맺힌다. 하나님

께서는 에녹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심히 기뻐하셨다. 그것은 에녹이 항상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고 한순간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녹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느끼기 위해 늘 기도를 쌓았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항상 하나님과 관련지었고 말 한마디, 생각, 행동까지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며 살았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히 11:5).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녹을 300년간 동행해 주셨다. 마침내는 더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아예 산 채로 들어 올리셨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 하였더라” 말씀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영의 사람을 심히 기뻐하시며 옆에 두고 싶어 하신다.

둘 아버지 하나님의 선으로 감동을 주며 악을 분쇄시키는 것

온 영에 들어가면 악이 없을 뿐 아니라 말과 행함, 표정 하나에서도 선한 향이 진하게 풍겨 나온다. 단순히 범사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섬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희생한다거나 스스로 낮아져 섬긴다는 의식조차 없이 당연한 일로 여긴다. 남의 허물을 전하거나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 준다. 악을 행하는 상대를 봐도 불편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선으로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도 있다. 항상 좋은 말과 칭찬만 하고 부드럽게만 대해 주는 것을 선이라 생각하지만 온 영의 차원에

들어오면 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가령, 호되게 책망을 하거나 모른 척 외면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외적인 모습과 달리 마음에는 훨씬 더 깊은 선의 마음이 있다. 사람 보기에 선과 하나님 보기에 선은 다르기 때문이다. 온 영의 차원에서는 영적인 선과 육적인 선을 정확히 분별해 악을 분쇄시켜 줄 수 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한 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한 자리에서 죽인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잔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미 악한 영에게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이

라 용서해 준다고 해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까지 우상 숭배라는 가증한 죄에 심히 물들게 했기에 단호히 정리한 것이다. 만일 엘리야 선지자가 육적인 선의 차원에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 가령, 남의 허물을 덮어 주라는 말씀도 상대가 돌이키지 않는데도 그냥 놔두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돌이켰을 때는 그 잘못을 기억하지 말고 덮어 주라는 뜻이다. 진정한 선은 악을 덮어 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분쇄시킬 수 있는 권세 있는 선이다.

셋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영적인 충성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다한 충성을 했다. 과선해 깊은 바다를 표류할 때도, 심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직 기쁨과 감사뿐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깨어나자마자 다음 사역지를 향해 떠났다. 그 마음에는 오직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정녕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난을 겪는다 해도 상관없다.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엘리야는 원래 유약하고 온유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만약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로 담판을 짓고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매

우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다. 자기 성격으로는 감당 못할 험한 일도 생명을 걸고 순종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을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했다. 이처럼 온 영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충성은 물론, 자기 방식과 취향, 성품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된다.

우리의 영혼을 새물결에 하는 방송, GCN!

3 March 2014.3.9~3.15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공부잘하는 비결 10-11
- 십자가의 도 16-20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 성경적 결혼관 1
- 창세기 강해 71-75
- 천국 17-21
- 지옥 3-7
- 우리 삶의 등불 10

GCN TV 설교

- 은혜와 생명 2/자기발견 2 (이수진목사)
- 마음의 향 2(이미영목사)
- 영의 세계 11 (이희선목사)
- 의와를 2-3/세상을 끝자 2(신동초목사)
- MIS강의 4 (정구영목사)
-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리가 이기었으니(김진홍목사)
- 사람의 공간(김태석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7-18
- 찬양드러요 18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7-18
- 향기 17-18
- English 8-9
- 플로리스트 4-5
- 아름다운 예배 8-9
- 찬양과 경배(3) 77-83

해외성회 프로그램

- 필리핀연합대성회 1
- 회상 2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1997년 5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째 됐을 때 뇌 이상으로 인한 기형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듯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민중앙교회 '제5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이미 송윤숙 권사님으로부터 암 등 각색 질병 치료를 비롯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들었던 터라 '하나님께 맡기자.'는 마음으로 부흥성회에 참석했습니다.

성회 첫 시간, 강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회자복했습니다. 이어 정상아 출산을 위해 직접 강사님의 기도를 받으니 마음이 평안했지요. 성회 마지막 날에는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9월 10일, 100% 기형아가 확실하다는 병원 진단과는 달리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지금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1999년에 교회 등록만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선 도매업으로 큰돈을 번 남편은 2004년에 전업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지만 마음처럼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술과 도박 등에 빠져 살며 점점 난폭해져 갔고 끝내는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2008년부터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았고, 들어오면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돼 있으니 늘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 자녀는 불안 속에 지내야 했지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해야만 할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 이루니 꿈만 같아요”



최영숙 집사 (2세대 17교구)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당회장님께도 심려를 끼쳐드릴 것 같아 그 시간들을 인내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했던지 그 때부터 어쩌다 한 번이라도 주일 대예배를

드러곤 했지요. 2009년, 두 자녀와 함께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21일 작정기도와 때를 따라 금식을 하며 기도했지요.

어느 날 심방

을 통해 남편 탓만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할 텐데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너무 몰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 그때부터 저는 입술의 말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매사에 감사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자 가정에 어둠이 떠나고 남편도 변화되어 갔지요.

2010년 어느 날, 남편은 꿈에서 소름끼치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날, 아들도 아빠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꿈을 꿴다고 했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온몸이 오싹 하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뒤 남편은 주일을 온전히 지켰고 술과 담배, 도박과 욕설을 끊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각종 예배 때마다 예물을 정성껏 드리며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졌지요. 세례를 받을 때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모함으로 준비했고, 집사의 직분도 사모해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힘썼습니다.

마침내 2013년 12월 말, 집사 명단이 발표되자 자신의 이름을 보고는 얼마나 감격하며 좋아하던지요. 이제 남편 김세동 집사님은 다시 개업한 생선 도소매업을 하면서 손님의 입장이 돼 마음 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대화를 하고 출근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에 자녀들은 매우 행복해하지요. 이처럼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참 행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해외에서 온 편지

“태어나 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외손녀가 손수건 기도를 받고 걷게 됐어요”

가난한 데다가 딸린 식구가 많다 보니 저희 집은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약하게 태어난 외손녀 아날린(8세)은 영양 결핍으로 전혀 걷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낼 뿐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사위는 아날린이 세 살 때 집을 나가 딸이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 살림을 하느라 교회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세부만민교회(담임 성숙 목사) 한 청년의 전도를 받아 출석하게 됐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는 제게 큰 위로가 됐고 마음을 포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뒤 온전한 주일성수와 온전한 심일조 생활, 그리고 주님 마음을 닦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할수록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작년 12월 8일,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부만민교회에서 이희선 목사님 초청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린 것입니다. 감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 환자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외손녀는 태어나 8년 동안 걸었던 적이 없었기에 치료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감사님은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에 관해 설교하신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때 외손녀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땅에 발을 딛고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걷지 못한 외손녀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날린 엄마인 제 딸은 너무나 기뻐했고, 지금은 함께 교회에 출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치료받은 외손녀와 딸과 함께한 리디아 고디즈 성도 (필리핀 세부만민교회)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1/3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번지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